



동신대 건축공학과 졸업작품전

2학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졸업작품전을 통해 그동안 깊고 닦은 전공지식을 선보이는 학생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동신대 건축공학과는 최근 도서관 5층 전시실에서 '제21회 졸업작품전'을 개최해 졸업예정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시했다.

광주대 자매대학 러시아 국립사회대 학생들

광주서 따뜻한 봉사활동

3개월간 실습교육도 함께

러시아 국립사회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과 봉사를 하고 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자매대학인 러시아 국립사회대학 사회사업학과 학생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장기간 머물며 현장실습교육을 받은 뒤, 봉사를 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이영철 광주대 보건복지교育대학장은 "이번 현장실습교육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우의와 협력, 복지증진 등이 기대된다"며 "조만간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학생과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러시아 현지 사회복지교育을 추진하는 등 상호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립사회대학 학생들은 국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현장실습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며, 3개월의 장기간 실습교육 역

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와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를 학생 10명을 이달 설립된 광주·전남 지역 8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분산 배치해 내년 1월 5일까지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지정 사회복지시설에 숙식하면서 각종 복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편 공공 기관 및 시설탐방, 다양한 사회복지행사 및 대학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해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이영철 광주대 보건복지교育대학장은 "이번 현장실습교育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우의와 협력, 복지증진 등이 기대된다"며 "조만간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학생과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러시아 현지 사회복지교育을 추진하는 등 상호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광주대 보건복지교育대학장은 "이번 현장실습교育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우의와 협력, 복지증진 등이 기대된다"며 "조만간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학생과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러시아 현지 사회복지교育을 추진하는 등 상호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하위권은 기본문제 집중 상위권은 취약부분 보강

■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능 수리영역 마무리 전략

EBS 교재 연계출제 70% 유지... 개념·원리 이해해야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리영역에 대한 공부 시간을 적게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공률인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라는 게 주된 이유다.

하위권 수험생의 경우 아무리 공부 시간이 많아도 단기간 수학점수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국·영·수 영역에서 만점자를 1%대로 유지하고, EBS 교재 연계출제율을 7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대목을 주목하고 충고한다.

EBS 교재에서 쉬운 문제만 골라

30점이었다. 즉, 수학을 끝까지 포기 하지만 않아도 최소한 5등급은 나온다는 의미다.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쉬운 기본 문제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도 5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단원별 대표 기본 유형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BS 수능 반영 교재에서 쉬운 문제만 골라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하위권 학생들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EBS 교재 가운데 '수능특강'에서 확인문제, 예제, 유제가, '수능완성'에서는 유형별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기본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풀이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답을 본 뒤 다시 풀어보고 며칠이 지난 뒤에 또 풀면서 풀이 자체를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위권 고득점 문항 노려라=상

위권 학생 대부분은 수학의 개념정리를 잘 돋아 있다. 그렇다면 고난도 문항에 대비해야 한다.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어려운 2~3문항이 곧 1등급이나 아니나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복잡한 상황이 주어지고 사고력이 필요한 4점짜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

실수에 대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문제가 쉬워지면서 한 문제 실수로 등급이 바뀌는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 자신이 풀었던 문제도 완벽하게 알 때까지 반복해서 들여다봐야 한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문제를 많이 풀려는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EBS 교재로 각 단원의 대표 유형을 파악하고 여러 원의 다른 문제집에서 해당 단원의 문제를 찾아 풀면서 관련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틀리는지 풀이 과정 한 줄도 놓치지 않고 청겨야 한다.

평일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단원마다 어떤 문제가 출제돼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단과 출제 유형의 문제를 다양하게 접하면 변형 출제 출제되더라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진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실제 수능시험처럼 시간을 정해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필요하다. 개념만 익히다 보면 시간을 배분하는 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수학' 환경상 홍보부사장은 "하위권 수험생은 기본문제를 풀기고, 중·상위권 수험생은 취약한 부문을 보강하는 한편 고단도 문제에 대비하는 학습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지주회사, 지경부 연구사업 선정

사업비 1억7900만원 지원... 11월 본격 운영

전남대기술지주회사(주)(대표이사 오태희)가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총 1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선도적인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역량

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확산과 정착을 유도하여 공공연구기관 및 국가 R&D의 사업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작했다.

특히 전남대기술지주회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현재 설립 완료한 자회사 J-care(주)(의과대학 이지범 교

수)와 설립 진행중인 그린멘트(주) (공과대학 송진규 교수), 에코리아스텍(생활과학대학 신말식 교수)의 사업 성공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태희 대표이사는 "전남대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회사를 주로 발굴·설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기술지주회사는 오는 11월 중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캠퍼스 소식

전남대-도교육청, 진로진학 정보교류 협약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는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체)과 진로진학 관련 정보교류와 상호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17일 오전 전남대 본부 5층 접견실에서 교류 협력 협정식을 갖고 고등학교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입제도의 선진화와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고교 교육 활성화와 입학사정관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로진학관련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 관계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연수 교류 ▲진로진학 관련 워크숍·세미나·학술행사 등의 공동주관과 교육 관련 자료의 공동 개발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한 상호 협력과 교류 기부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윤수 총장은 "내실있는 고등·중등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남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다솔유캠퍼스, 조선이공대 학생들에 장학금

조선이공대학(총장 김왕복) 하이테크 CAD/CAM과 재학생 김성용(1학년)군 등 5명은 오는 2학기 다솔유캠퍼스 대표이사 권신혁(大)로부터 1인당 30만원 총 150만원 장학금을 지원 받았다.

조선이공대학 하이테크 CAD/CAM과 1995년 졸업생인 다솔유캠퍼스 권신혁 대표이사는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증액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신혁 대표이사는 "매년 후배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 기쁘다"며 "능력 있는 조선이공대학 하이테크 CAD/CAM과 후배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계산업을 이끌어가는 CAD/CAM 핵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베풀이 되어 주겠다"고 말했다.

권신혁 대표이사는 1997년에 다솔기계설계교육연구소를 창업하여 2001년 1월 다솔유캠퍼스를 오픈했다.

목포대 도서문화研, 20일 학술심포지엄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김선출 광주보문화산업진흥원 산업체정책팀장이 '전남문화산업의 발전 방안'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흥석준 목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종합토론회에서는 김광훈(전남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장), 박종오·김경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김태수(전남문화예술재단 교육지원센터 팀장), 김준(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복길(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김선출 광주보문화산업진흥원 산업체정책팀장이 '전남문화산업의 발전 방안'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흥석준 목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종합토론회에서는 김광훈(전남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장), 박종오·김경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김태수(전남문화예술재단 교육지원센터 팀장), 김준(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복길(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거나 일대를 냄새나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 빨리 펼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올라오시오.

도서문화연구원 원장이 '전남 도서해양문화의 정체성과 예술화'

을